“青山別曲”再致

李 東 根

I. 問題提起

“青山別曲”에 대한 연구는 梁柱東 교수(1947)에 의해 語釋이 이루어진 이래, 構造・主題・表現技法・作家에 대한 연구가 後續되어 왔으며, 연구자들은 한결같이 本歌を 國歌(李秉岐) 또는 高麗歌謡 中 絕調(梁柱東)라고 일컬어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영무의 장” “예정지” “사사미 집대에 올라서” 등의 구절에 대해서는 解析상 통일된 결론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 主題에 대해서도 각기 상이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형편이라 하겠다.

그런데 本歌의 研究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점은 학자마다 상이한 견해를 표명하고 있는 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部分에 대한 각자의 견해가 全體를 해석하는 데 自足의이지 못하다는 데 있다. 예컨대 2분段說(金尚憲・李仁模)과 5・6聯의 偉大節(李熙昇・鄭炳昱)을 주장하는 견해를 따르면, 내용상의 不一致을 설명할 수 없고, 주제를 사랑할 법 은 여자의 悔恨(金完鎬・李仁模・成賢慶)・失意的 平民 文士의 悲哀(徐首生)・술 매춘의 노래(鄭炳昱)・流浪民의 悲惨相(申東旭)이라는 견해

* 육군 제3사단학교.

1) 李仁模 교수는 (“青山別曲 内容의 再検討”) 1분段은 1면에서 6면까지로, 2분段은 7・8면으로 보았다. 한편 李鴻明教授은 (“青山別曲研究”) 全篇은 3分段으로 나누고, 1분段은 5면(動機) 2분段은 1・2・3・4・6・7면(過程)으로 3분段은 8면(結果)으로 보았다.

2) 金尚憲教授은 (“青山別曲研究”) 崔正如教授과 (“高麗의 話話歌辭論述”) 같은 韓国の 交替를 樂習의 必要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물을 따르면, 청산과 바다라는 배경⋅장고⋅출 등의 소재와 여자와의 무관련성,世俗의 廣大들이(“사슴이 잠재에 올라서”) 그리고 세속적 快樂에 안정(“설진 강수”)와 현실생활의 悲哀와의 內容의 距離, 1분과 2분의 內容 構造의 不一致을 설명하기가 곤란하다.

아래 필자는 語句・主題・形式・作家 등에 대한 논의는 작품 全篇에 걸쳐서 타당성과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으니 고, 本歌는 현실에 不満을 느끼고 山林에 隱遁하고자 했던 사람이 운문의 역경을 상상하며 속세에 인주하는 風流的 청산운문 다시 말하면 俗世禮讚의 風流라고 생각하고자 한다. 이때 운문의 역경에 대한 상상은 과거의 체험 일 수도 아니면 단순한 상상일 수도 있으리라.

이러한 속세애찬의 의지는 어찌면 관념적 賞自然 및 운문을 구가하던 선조들의 생활을 눈여겨 보면 역으로 쉽게 도출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한편 이것은 조선조 士大夫의 觀念의 自然觀과 義理상에서 韓國의 隱求라고 명명하고, 이를 별도의 章을 설정하여 言及하고자 한다.

논의를 전개하기 전에 기존 연구 중에서 필자가 회의를 품었던 內容의 點을 列舉하여 다음과 같다.

첫째, 2분과의 56절의 위바템을 주장하는 관점인데, 이는 형식에만 집착한 것으로써 이들의 기준에 일관해 볼 때, 本歌가 麗詩의 絕調 또는 白眉(徐首生)라는 평가는 타당한 것일까?

둘째, 本歌의 主題를 失戀者의 悲哀(金亨奎・梁柱東・全圭泰), 流浪民의 窮乏相(申東旭・朴炳采), 平民 文士의 悲哀(徐首生), 隱者의 頭(金思準) 등으로 본 것3)은 내용의 綿密한 分析 보다는 “청산별곡”이

3) 《慶慶賢 교수는(“靑山別曲歌”) 靑山export 및 바다export 詩詩의 起承轉結 구조와 정확히 내용된다고 하였는데, 내용을 명확히 분석해 보면 이 주장에는 무리가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隱求 산 隱遁에 뵐비될 수 있는 개념으로서, 崔珍源 교수는 『國文學과 自然』에서 世態観望의 隱遁을 나타내기 위하여 使用한 用語이다.
“靑山別曲”再考

257

라는 제목과 俗謡라는 장르명에 집착하여 도출된 견해가 아닌가?
세계, 내용만을 고려하여 작가를 平民・女人・隱逸居士(張德順) 등으로 추정하였는데, 이 점은 音樂의 次元에서 재고될 필요는 없는가?

II. 解析學의 論議

이제까지 先學들은 각 구절에 대한 해석을 실시한 후 전체적 歌意를 도출하여 왔다. 그 결과 부분에 대한 설명은 만족스러우나 전체적 가의를 추정하는 데는 미약과 둔단이 수반되어야 했다. 이에 필자는 기존 견해를 참고하여 전체적 가의를 먼저 도출한 뒤, 부분을 해석하는 귀납적 해석방법을 선택하고자 한다.

“靑山別曲”을 해석함에 있어, 아직까지 “률아라” “경수도 창고” “예 경절” “사사미 절대에 올라서” 등의 구절에 대하여 학자마다 이견을 표명하고 있지만, 전체적 가의를 도출하는 데는 이들 보다도 이 노래가 5.6절의 순서가 바쁜 것인가 아니나를 구명하는 것이 더 우선될 문제라고 생각된다.

형식적인 면만 고려하면, 各 聯의 末句를 봐야 5.6절의 배바잡을 주장한 다음과 같은 權在善教授의 견해는 6)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table>
<thead>
<tr>
<th>청산련</th>
<th>비다련</th>
</tr>
</thead>
<tbody>
<tr>
<td>1. 살어리맞다</td>
<td>5. 우니노라</td>
</tr>
<tr>
<td>2. 우니노라</td>
<td>6. 살어리맞다</td>
</tr>
<tr>
<td>3. 본다(감각)</td>
<td>7. 드로라(감각)</td>
</tr>
<tr>
<td>4. 엽치호리라</td>
<td>8. 엽치호리있고</td>
</tr>
</tbody>
</table>

그러나 이러한 논리를 따라 본가를 재배열하고 그 小主題를 살펴보면

5) 한편 “靑山別曲”의 주제를 鄭炳熔 교수는 (『韓國古典詩歌論』) 속의 노래로 李勝明 교수는 (『青山別曲研究』) 삶의 강한 의지와 현실에의 적극적 참여라고 보았다.

靑山 聯과 바다 聯의 內容 展開는 너무나 상이하며 또한 이들의 주장을 따르다면 과연 청산별곡이 麗謡의 白眉인가? 라는 강한 反問을 유발하게 된다. 이에 儀의文 權在善교수의 論理面로 全聯을 계제하고 그 소주 제를 살펴보자.

청산 별 곡

살어리 살어리리타나
청산에 살어리리타
바라타 삶어리리타
바라타 삶어리리타

살어리 삶어리리타
“청산에 은거”
바라타 삶어리리타
“바다에
나다자기 구조개방 먹고 은거”
바라타 삶어리리타

우리라 우리라 새여
자고 너라 우리라 새여
“우수”
리리라 마치던 놀고
“고적강의
리리로 의미도 없이 절경”
마자서 우리노라

가단새 가단새 본다
문아래 가단새 본다
“속세에 내
임무는 장공란 가지고
한 그리움”
사나미 점대에 들리서
통과

가단가 가단가 드로라
예경기 가단가 드로라
“속세
/he삼을 헤쳐는 드로라

이리포지리포 하야
나조만 지마와 손녀
“법의 교통”
조롱곳 두뇌기애와
안주

가난히 배불론 도지
설전 경수를 비조라
“속세에
잡사와니 네것니 하리있다

이렇게 보 면, 形式面에서 整然한 對稱을 이듬에도 불구하고 내용면에서 靑山 聯과 바다 聯은 별도로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이 노래가 문학작품이라고 보다는 노래의 가사였다는 점으로도 설명할 수 있지만, 그렇다면 무엇을 근거로 이 노래를 國歌 또는 麗謡의

“西京別曲”、“鄭石歌”、“滿鷂春” 등이 전해오던 민요를 중국에서 세
로 유임된 宋樂에 맞추기 위하여 再構成했다는 見解는 타당성 있는 견해며, “청산별곡”도 이러한 점에서 예의는 아닐 것이다. 상기 속유들이 나름대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것은 비단 구전하던 노래를 재편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름대로 정체된 形式美와 主題의 均齊美를 보여주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청산별곡”의 주제적 정연성을 歌의 장 점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5·6면을 그대로 놓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本歌의 주제를 생각해 보자. 歌자는 “청산별곡”이 어떤 이유에 따라 自意 伴他意 伴 작자는 청산에 거거지 않으므로 안될 입장에서 山中生活을 상상해 본 노래로 보고자 한다. 즉

청산에 온거한다. 산속의 孤寞함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바다로 가기 위해 여항을 지닌다. 俗世의 유혹을 멀쳐버리지 못한다. 속세로 돌아오 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마음의 과정을 온은 俗世 禮贊의 노래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靑山에서 隱退을 가정해 본 노래라는 것이다. 그래야만 本歌는 부분의 단절이 없이 聯間의 內容의 間隔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럼면 연구자의 입장에서 작자 자체로 돌아가 보자.

俗世에서 失蹤을 했건, 당생에서 폐배하여 驚奇을 당했건, 厉害와 羅煩에 찍힌 현실이 심어져 自意로 音운의 회망하던 작자는 어떠한 이유에선가 靑山에의 음운을 예찬하고 있다. 그러나 산속에는 세마치 벗이 되어 줄 뻔하고, 그 세마처 나의 시름을 달래주기 보다는 오히려 반민 을 더해주고 있다. 그나마 山中の 벗인 이 세마처 속세로 날아가고 있지 않은가. 어쩌면 저전해서 찾아 왔을지 모르는 靑山이지만 후회스럽 기도 하였을 것이다. 더구나 밤은 작자의 孤獨感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고독감이 심화되어 이제는 경필 수 없는 병이 되었기에, 바다로 가면 어떻겠는가 山을 나서 본다. 이때 闊巷의 거리에선 사람들이 모여

광대놓이를 구경하고 있고, 조금 더 가까이 만한 손을 빚는 사주가 있 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먹히지 못하고 주막에 들어가 술잔을 들어 야 했다. 즉 작자는 자존심을 버리고 산을 떠나 세속으로 돌아보지 않 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과거 청산에 온적이었던 또는 청산에 온적이며 자신이 겪을 상 황을 회고 또는 상상하며 작자는 “청산별곡”을 것이다. 왼일을 않았을까?

이렇게 본 뒤, 본가는 분홍색의 것이 아니라 연주음이 분명하다. 또한 “청산별곡”이라는 제목은 “滿殿春” “西京別曲”에서와 같이 첫 번째 노래에 산이란 단어가 있어서 취합한 것이며 청산을 연상하기 위하여 또 는 자연적 규칙을 넣어주기 위하여 선택한 제목은 아닌 것 같다. 이 노래 가 산과 바다의 2분으로 나누어져 있고, 자연 운동의 노래라며는 그 제목은 “청산별곡” 보다 “山海別曲”으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즉 이 노래를 이해할 때 “청산”이란 단어에 직접적 필요한 필요가 없으며, 마찬가지로 마지막 연예 너무 직접적 필요가 없다. 단, 염취를 떨어하던 민요를 해석했을지도 모른지만, 그 편사는 나름대로 주체적 력리성 을 가졌으리라 생각된다. 그것은 일본가 유추할 현실에 대한 ‘희망이’라고 볼 때, 비로소 본가는 주제의 ‘균질’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생각 된다. 이러한 점에서 도래는 ‘馮州의 滅언 속에서 조선조 사내부가 위위했다던 삶의 태도였으며, 그 전통은 고려조 흥족의 만한 이후 흥족들의 전통으로서 연유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었다.

이렇다고 본 뒤, 속요하는 점에 구애되어 “청산별곡”은 유량민의 외과적 경호를 나타낸 것이고, 그 작자는 평민이었을 것이라는 견해는9) 제고할

---
여지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에 대해서는 "의례악이 수입될 때 국내에는 ① 기존 사설의 새가락에 代入 ② 새가락과 사설의 조절 ③ 사설의 창작이란 단계를 설정해 볼 수 있으며, "청산별곡"도 이 중 ② 단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한 김태규 교수의 견해는 주목할 만하다 하겠다. 즉 본곡을 이루고 있는 부분은 민요 부분일 경우도 있고 작곡자의 창작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비단 일부분은 민요에서 취했을 수도 있지만, 그물의 일반성과 재조정한 사람은 궁중음악을 담당하고 있던 문신인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전통적이며 작곡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예사행곡"과 "천녀별곡", "서경별곡"과 "져석歌"에 동일한 형식과 전해가 삽입되어 있지만 그들 각자는 나름대로 고개로 주어진 가진 노래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서 고려숙요는 단지 그 명칭이란 기호로서 작곡 속에서 억지로 명명의식을 도출하려 하거나, 궁중악 또는 민요작가에 의해서 창작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된다. 즉俗謠中别曲으로 불리어졌고, 궁중에서 사용되었던 "서경별곡"・"개발별곡"・"서경별곡"・"천녀별곡" 등의 작곡에 대해서는 특수한 고유가요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청산별곡"의 창작시기에 대하여, 대부분의 학자들은 형식과 언어구사법, 시간・정서 등의 면에서 전려시대에 창작된 가요를 추정하였으며, 徐首生 교수는 견해를 접목한 연후의 명인 촌벽의 관찰에 입증했으며, 高宗 (1216 1259)의 풍후 作品으로 보았다. 한편 金태규 교수는 최초의 한문별곡인 "개발별곡"은 고종 3년 (1219)에 창작되었지만, 별곡을 범례시킨 講究의 傳来는 예종대 (1106 1112)까지 ⑩ 소급해 볼 수 있다고 보아 國文 別曲인 "서경별곡"・"서경별곡"의 창작시기를 예종대까지 소급할 수 있다고 ⑪ 보았다.

10) 金태규, 前揭書, p.250.
12) 金태규, 前揭書, p.256.
필자는 仁宗에 이르러, 鄭敾가 番外지에서 "鄭瓜亭曲"을 지어, 懲君의 정을 옮겼듯이, 本歌는 어떠한 이유로든지 番外지 산림에 은거해 본 사람이며 그 이유는 政爭으로 인한 일시적 避身으로 추정해 보는 것이 무난하리라 생각된다. 예종 이후 宋樂이 전래되어 別曲이 창작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고 또한 고려조에 정쟁이 본격화되었던 것은 仁宗의 李寔謙의 饒亂(1126, 咸宗 4년)과 妙濟의 亂(1135, 咸宗 13년)에서 비롯되었고 보아 이 때 은둔을 경험했던 자에 의해 창작된 것이 아닌가 하고 추정해 보고자 한다.

그럼 본곡의 大雅적인 음악을 이 정도로 제시해 높고, 주석상의 문제 점을 이러한 맥락에서 언급해 보기로 하겠다.

첫째, '살어리라도'에 대하여 '살았을 것임' (鄭敾作) 또는 '살아갈 것이라도' (朴炳采) 등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필자는 이 승명교수가 "I must go to live in the mountain, otherwise I should die"라고 13) 했듯이 이것은 단순한 원망이 아니라 당시의 작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막다른 길로 보고자 한다.

둘째, 3편의 "양우와 장골란 가지고, 빗아래 가던 새 본다"에서 "양우와 장골란"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이 행위의 主體를 규명하는 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리라 생각된다. 徐首生・鄭敾作・全圭熙교수는 "가지고"의 주체를 작가로 보았고, 李仁模・李勝明・朴永煥교수는 새로 보았다. 즉, 李仁模교수는 사람에 비유된 새로, 李勝明교수는 俗世를 떠나는 사람을 상정하는 의미로, 朴永煥교수는 이끼를 뜯고 떠나가는 새로 작가 설명하였다.

비단 統詐論상 "가지고"의 주체가 세일 수도 작가일 수도 있지만, 새로 보는 견해들은 신의 상정의미로 사람을 설계해야 했으며 장고를 부리로 보는 비유를 수반해야 했다.

“우리라 우리라 세여/차고 내리 우리라 세여/별라와 시름한 나도/
차고 내리 우니까노라”는 2행의 1·2문은 세에 대한 관찰이고, 3·4문은 그 감정의 작가에로의 이동을 보여주고 있듯이, 3연도 1·2문은 세에 대한 외관의 관찰이며, 3·4문은 작가의, 주관의 심경의 발라라고 생각된다.
여기서 남는 문제점은 왜 작자는 “이끼 묻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되리라 생각한다.
작자는 원래 청산에 살던 사람이 아니요, 숙세에 있다가 부득이 하여 청산을 찾아 사람이. 그리고 청산에는 山菜와 山果가 있다. 그리하여 담분간은 식량 걱정이 없었지만는 山中 生活이 계속되어 근심을 멀어버리는 방법으로 그러고 山中卜를 위하여 밤을 일구어야 했으리라. 그러니 이겨가 깊은 집정기를 며고 산중의 발을 걸려고 집을 나서게 되었으며, 그 때 몇 아래 동네로 날아가는 세를 보았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 “예정지 가다가 드로라”의 “예정지”에 대하여 梁柱東 교수는 避緊로, 金圭泰 교수는 마당으로, 徐首生 교수는 高宗께 稲穀의 명수 宗智로, 金尙憲 교수는 “정지예”의 도지로 보았다. 이를 참고로 하여 朴永煥 교수는 부영이 가다가 사슴벌레가 장대에 앉아서 우는 것을 듣는다로, 金亨崑 교수는 사슴을 사람의 먹료로 사람이 장대에 올라가 목어를 하는 것을 듣는다로, 梁柱東 교수는 伊南方의 다음을 避緊으로 노래한 伊方로, 徐首生 교수는 稲穀의 名手 宗智여! 사슴이 長竹林裏에 들어가 해금을 켜는 풍음소리를 들어보아라로, 鄭炳洞 교수는 기적이 없이는 삶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을 나타낸 것이라는 등으로 해석하였는데, 어느 것 하나 전체적인 문맥의 부분으로서 자율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해서는 金完鎬 교수의 견해가 가장 무난하리라고 생각된다. 즉 바라가 가기 위해 마을 어린가 (예정지: 豫定地?)一筆者註)를 가다가 저 절에서 들리는 山壘雛獸鳴들의 떨들썩한 소리를 들어 사슴의 발을 쓰고 장대에 올라가 해금을 켜는 廣大의 曲藝와 歡聲을 지
로는 구경문의 모습을 보았다는 내용이라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가다니 배른 노기/설진 강수를 비조라/조롱곳 누로기 배와/잡사와니 내 엇디 하리었고"의 마지막 연도 "가다니"의 주체, "강수를 빚는" 주체, "잡사와니"의 주체와 객체 등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이제까지는 대체로 "내가 가서 배른 독에 강주를 빚어 마시며 술에 취하겠노라"로 설명하여 왔다. 그러나 필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자 한다.

(내가) 가다르너/배른 독에 설진 강수를 빚는 사람이 있구나/조롱곳 같은 누로트의 병세가 독하여 (나를) 잡으니/내가 이제 술을 마신 왜연한 수 있었겠는가.

여기에서 술이란 술 자체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세속적 제략의 대명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 수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이다.

Ⅲ. "青山別曲"通釋

위에서 살펴본 주제・작가・창작시기・구성에 대한 대략적인 언급과語釋을 바탕으로 本歌를 통식해 보자.

어떤 이유에선가 작가는青山에 살지 않을 수 없는 자신의 현재 입장을 생각해 본다. 진실로 泉石을 좋아하여 자연애의를 하였다면, 구태여 세소리에 시름을 느끼고 밤을 꾸로워 하고 俗世를 그리워할 필요가 없었으리라. 그러나가 청산에 살겠다는 序頭 句節에 접착하여 隱遁歌를 하는 先入觀念을 가질 필요는 없다. 여하튼 현실에 대한 좌절과 실망 때문에 청산을 찾고 싶은 욕망을 간절히 느끼고 있으리라.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과거 운문생활을 한 시기의 고증을 생각해 본다.

살겠노라 청산에 살겠노라/머루랑 다례량 마먹고/마루도 청산에서 살아보겠노라.
그러나 갓관에 기거하던 작자가 갑자기 산속에서 감직하게 되자, 벗 이라고는 말없는 자연과 지저귀는 새 뿐이었으리라. 이 새의 울음은 헤져한 작자의 마음을 달래주기는 컸나 오히려 벗없이 홀로 있는 작자의
의로움을 가일총 심화시켰을 것이다.

우는구나 자고 일어나 우는구나 새아/너보다 시름이 많은 나도/자고 일어
나 올고 있노라.

작자는 원래 산속사람이 아니었기에 의식주 문제에 걱정이 없을 수 없었으리라. 옷과 밑은 생각처럼 해결할 수 있지만, 먹을와 다투만으 로는 식량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기에 오랜 동안 헛간에 묻혀 두었던, 이끼가 많이 견 꿈꾸를 가지고 집 주변에 있는 밥이라도 일구고 싶었을 뿐이었으리라. 매마침 시름을 자아내던 새가 물아대 동네 죽 숙세로 날아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은가. 그리하여 다시금 숙세를 동경 하는 마음이 작자의 머리에서 일렁이고 있다.

가던 새 숙세로 날아가던 새 본다/이겨움은 꿈꾸를 가지고 나는/숙세로 날
아가던 새를 본다.

바갈 세상의 이런 일 지면 일을 공상하며 그리고 밑이라도 견서서 낳은 보듯지마는 동불을 밟히고 의로운 침상에 든 작자는 왜 내가 이러한 산 속에 왜서 고생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했으리라. 아니면 이제라도 자존심을 버리고 숙세로 내려갈까도 당설여 보았으리라.

이러저러하여 낳은 보듯지마는/술 사람도 별 사람도 없는/이 산간의 발을
앞으로 어떻게 보내야 한다면 말인가?

이러한 산중 생활에 계속되자 까닭없이 가슴에 수십이 걱정과, 도
저히 해어날 수 없는 독특의 전연으로 작자는 펀저 들었을 것이다.

어디나 며지리 돌이가/누구를 맞이하는 돌이였던가/미워할 이도 사랑할 이
도 없는만/내가 왜 맞아서 올고 있는지
고독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한 작자는 결단을 내리본다. 속세로 귀환하는 것은 아직 자존심이 험락하지 않으니 혹시 바다로 가면 이 근심이 풀어지지 않을겠는가 고.

 chá나바나라 / 어디 한반 바다에 가서 살아보자 / 나룻새와 조개를 먹고 / 바다에 가서 살아보자.

그리하여 결단을 내린 작자는 이주 보따리를 준비하여 바다로 가는 길에 올랐으려다. 얼마쯤가다 여향을 지나려니, 짐승의 탈을 쓴 광대가 장대에 울라가 절음을 쳤는 묘기를 부리며 그를 들려준 구경꾼들은 환성을 지르는 것이 보이지 않는가. 나도 저 무리에 끌려서 세속적 해락을 즐겨나 보까? 하지만 다시 마음을 고쳐 먹고 산촌에 앉아올 결정했던 본래의 자모를 생각하며 발걸음을 옮긴다.

가다보니 돌리는구나 / 어디쯤 가니가 돌리는구나 / 사슴의 탈을 쓴 광대가 장대에 울라가서 / 악기를 쳤는 것이 돌리는구나.

얼마쯤 더 가다보니, 이제는 숨을 빛는 주먹이 있고 조롱결 같은 누룩의 모양과 그 냄새가 퍼져하여 도저히 나의 발걸음을 빼놓지 못하게 하니 어찌 바다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겠다.

가다가 보니 / 배부른 독에 설진 장수를 빛는 사람이 있구나 / 조롱결 같은 누룩의 냄새가 독하여 나를 잡으니 / 내가 어찌 숨을 이면할 수 있었는가.

결국 자연에 은거하며 살겠다는 알락한 자존심을 버리고 세속적 줄거움을 누리며 세상과 어울려 그럭저럭 살아가 작자는 마음 먹었으리라. 이렇게 볼 때 “청산별곡”은 주체면에서 일정한 전개과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즉 “청산별곡”은 현실의 불만족 때문에 자연에 은거를 생각해왔다가 현실적 욕망을 멈치지 못하고 은둔을 포기 숙세에 안주한 지식인의 판점을 허세가 내포된 노래라고 생각한다.

물론 은둔자의 숙세귀환의 노래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자연에
서 현실로 복귀하면서 이러한 노래를 짓는다는 것은 그 현실성에서 무리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과거 산림에 온거해 본 사람이 산림에 온거해야 할 입장에서 숫자를 타는 숫자예찬의 노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청산별곡” 1권은 발단으로 산림에 온거를, 2·3권은 전개부분으로 산수의 애도와 예술에 대한 동경을, 4·5권은 산수의 고독이 극대화되는 절제 부분에 해당된다. 또한 6·7권은 산수의 고독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바다로 떠나가는 전환에 해당하며, 8권은 자신의 부조진 자존심을 버리고 숫자로 돌아오는 대단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청산별곡”은 작가의 실제행동의 기술이 아니라, 온거와 숫자로의 귀환과정에 대한 관념적 기술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이러한 일련의 내용은 그의 과거체험에서 도출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IV. “청산별곡”과 한국적 은유

無為自然을 도덕의 표준으로 하여, 虛無를 우주의 근원으로 삼은 老莊思想은 현실을 버리고 자연에 몰려 한정성을 보내는 은둔객을 낳았으니 이들이 바로 중국의 竹林七賢이다. 이러한 은둔사상이 한국에는 유교적 실천윤리에 여과되어 들어온 가람에 觀念의 江湖遊道를 낳았고, 그 한국적 실천은 대체로 致仕後 閒遊이나 黨爭下의 避世로 나타났으며 그들은 이러한 자연 속에서도 항상 임금의 막을 기리며 다시 왜의 만남을 고대했다. 이를 한마디로 崔珍源교수는 “(中華의) 은둔은 노장적 現實否定이요, (한국의) 은유는 儒學의 現實肯定이다”14)라고 언급한 바 있다.

鄭炳 раздел수는 “‘청산별곡’은 조선조의 시조와 가사에서 볼 수 있는 은둔가가 절반대의 작품이다”15)라고 말한 바 있으나, 필자가 보기에 “青

山別曲”은 은둔의 노래가 보다는 隱居의 노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는 당대에 육중을 찾았던 조선조 시대부의 음악가의 희가의 작물이라고 추정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그 노래는 숙세에 있으면서 자연예찬의 노래를 구가하던 觀念의 無形自然의 面과 山林에 있으면서 현실에 대한 관념이 지배한 세계관과 경신의 변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고려 의종 5년 (1151)에 鄭敾은 僑臣 정함・김준중의 惠訴로 동해 및 거제도로 유배되었다. 그러나 그는 유배지에서 임금을 원망하기는 커녕 자신의 음울함과 임금에의 忠情을 토로한 “鄭敾曲”를 읊었다. 그리고 明宗 太宗 (1170)에 대사령으로 유배지에서 물러 새응을 되었다. 이와같이 우리의 先祖는 비단 深山幽谷의 유배지에서 自然을 벗하며 그 楽을 찾기 보다는 언제나 救災이 이루어져 出仕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였다고 보인다. 이러한 士大夫의 삶의 모습은 조선조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강호에 노자하니 성주를 띄리고
성주를 띄키자니 所樂의 여가이라
호온자 轉계에 서 간 더 몰라 홀노라

에서 보다시피, 權好交은 임금을 섭겨야 한 지 자연으로 돌아가야 할 지 망설이고 있다. 그러나 신지로 이러한 망설임은 항상 臣路의 진출로 갈등은 끝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향기로운 달빛은 초가를 풍고
대나무에 이는 바람은 물체탄을 쏟다
길획한 이곳에 사람을 오지 않고
산쇄들만 한가로이 날아 오간다.

(羅月穿茅屋 磛蘆掃石壇 峄深人不到 山鳥去來聞)

－朴仁老，蘆洲幽居－

15) 鄭炳景, 「韓國古典詩歌論」, 新丘文化社, 1978, p. 84.
이 시에서 藁溪는 山林에서 隱逸自適하는 마음을 노래하기 보다는 공
벽한 譽居地에 知友相得 찾아오지 않는 의로움을 노래하고 있다. 또한
“이 세상의 부요함과 존귀 하여는／모두 하늘에 맛겼도다”라고 하면서
충성을 호도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며(“天字十五韻贈樂山亭主人”), 속
세를 벗어나 산중에 살면서도 혼이 들어가는 심세를 한탄하
고 있다. ("蒿溪卜居") 이처럼 관직이 고향 만호에 이르렀다가 退任한
노제가 마치 귀양살이를 하면서 군주를 그리는 듯한 한시를 지었음은
관찰에 나아가 자신의 용기를 띄보고 삶은 심정의 反語法의 것이다. 이
러한 점에 대해서도 崔珍源 교수는 “書劍을 이루고 立身揚名할 수만 있
다면 江湖는 언제든지 저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가 강호에서 현실
에 대한 무관심과 혼로의 세계를 끌어다가 기회만 오면 ‘강호에 병이
깊어 줍임에 놓으며 關東 800리에 방면을 맡기시니 어와 성은이야 가
더욱 망국하다’라고 서슴없이 저버리고 현실로 띄어드는 것이”16) 사매
부의 생활에 대해 강조하였다. 

“청산별곡”이 강호를 동경하고 귀겨비하였으나 청산이 받아주지 않자
그 의료음을 견디지 못하고 속세로 돌아오는 과정에 대한 상상의 노래
하고 할 때, 이 노래는 韓國의 調去來를 대표하는 노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 노래는 중국의 隱遁歌와는 다른 韓國의 隱居歌이며, 이
는 經國齊民의 儒敎倫理에 지배를 받은 우리 先人들의 당면한 삶의 자
리였다고 생각된다.

V. 결론

이상에서 고찰한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청산별곡”은 아직까지 몇몇 구절에 대해 학자마다 그 해석이 다르지
만, 해석상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이 連章體인가 分章體인가 그리

16) 崔珍源, 前掲書, p.25.
고 5·6년의 순서바람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는 일이라고 일으키는 생각했다. 이를 형식·내용 양면에서 고찰하여, 본가는 連章體로 보아야 하며, 연의 순서도 현행대로 바뀌이 없어야만 주제적一貫性을 가질 것이라고 증명해 보았다.

또한 이 노래가 민요의 상당 부분을 내포하고 있다 하더라도, 作者는 궁중음악을 담당했던 交響作家の 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주제는 어떤 연유에선가 속세를 떠나 청산에 기거하게 되었던 작자가 간속의 고적함을 이기지 못하고 현실로 돌아오는 과정을 상상해본 현실에착으로 생각해 보았다. 창작시기는 宋樂이 예종 때流入되었던 짝을 기준으로 하여, 귀족으로 하여금 山林에 손자를 강요했던 귀족의 乱亂期인 신종태가 아닐까 추정해 보았다.

解釋의 문제에 있어서도, 3년의 가지고의 故體를 ‘작자’로 보았고, 末聰의 해석을 ‘(내가) 가다보니/배부른 독에 섭진 장수를 빚는 사람이 있구나/조롱고 같은 두룩한 법세가 독하여(나를) 잡으니/내 어깨 술을 의면할 수 있었는가’로 해석하였고, 여기에서 술을 술 자체의 의미보다 세속적 즐거움의 대명사로 보고자 했다.

‘청산별곡’에서 본 수 있는 산림속에서 속세에 대한 관심 표명은 中國의 無為自然파는 다른 것으로, 이는 朝鮮 士大夫의 일반적 삶의 방식으로써 유교윤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필자는 韓國의 影響이라고 명명해 보았다. 결국 ‘청산별곡’은 이런 유의作品의 묘시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参考文献

金思錫, 「改稿國文學史」, 正音社, 1956.
金明昊, “高麗歌謡의 全般의 性格”(「韓國詩歌文學研究」, 新丘文化社, 1983).
“青山別曲” 再考

金完鎬，“青山別曲에 對하여” ([古典文學을 찾아서]. 문학과 知性社. 1976).
金仁煥，“異解 青山別曲” ([高麗歌謡 研究]. 伽倻 2. 1965).
金亨奎，“古歌謡註釋”，一潮閣. 1967.
朴炳榛，“高麗歌謡語源研究” ([高麗歌謡 研究]. 宜明文化社. 1968).
朴源義，“韓國歌謡文學論” ([高麗歌謡 研究]. 宜明文化社. 1974).
朴永煥，“青山別曲 再分析” ([高麗歌謡 研究]. 伽倻 11号. 1980).
徐光永，“青山別曲小校” ([高麗詩歌研究]. 蠟象出版社. 1974).
徐在克，“麗謡註釋의 問題點 分析” ([高麗歌謡 研究]. 伽倻 19号. 1968).
——，“麗謡解釋의 多寡 및 가치 問題” ([高麗歌謡 研究]. 伽倻 64号. 1975).
成賢慶，“青山別曲 改” ([高麗歌謡 研究]. 伽倻 58·59·60 号. 1972).
安秉俊，“青山別曲小校” ([高麗歌謡 研究]. 伽倻 1号. 1949).
梁柱東，“麗謡校注”，乙酉文化社. 1947).
李明九，“高麗歌謡의 研究”， 新雅社. 1974).
李秉煕，“時用硯樂譜의 探 考察” ([高麗時代의 言語와 文學]. 蠟象出版社. 1975).
李勝明，“青山別曲研究” ([高麗歌謡 研究]. 正音社. 1979).
李仁模，“青山別曲 內容의 再検討” ([高麗歌謡 研究]. 伽倻 61号. 1973).
全圭泰，“高麗歌謡”， 正音社. 1968.
鄭炳玉，“한국歌謡사가론”，新丘文化社. 1978.
崔正元，“高麗歌謡 語源討論” ([高麗歌謡 研究]. 正音社. 1979).
崔珍源，“國文學과 自然”，成大出版部. 1977.